

##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중국 여성 복식의 변화와 그 유형에 대한 연구 -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

조영란·이금희<sup>†</sup>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f the Changes and the Types of Chinese Women's Clothing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of European Culture

Yong-Ran Cho and Keum-Hee Lee<sup>†</sup>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2008. 3. 21. 접수 : 2008. 10. 31.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in Chinese women's clothing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terms of Chinese view of the world and their attitude towards European culture. The clothe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 traditional Chinese type, China-Europe adjustment type, China-Europe blend type and European type. As for the research method, both literature and visual data are examined.

The traditional Chinese type showed changes only in the width and length retaining the features of the traditional qipao until the 1910s.

The China-Europe adjustment type used the same flat pattern making of traditional Chinese dress while imitating only the appearances of European one-piece, two-piece and three-piece dresses. It also was presented with European accessories and hair-styles.

The China-Europe blend type, starting to appea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dimensional pattern making from the Europe in the 1930s, showed a perfect mixture of European and traditional Chinese costumes in the early 1940s when the Chinese learned and adapted the European pattern making.

The European type was the most modernized designs using a variety of European-style details and constructions as the traditional clothing started to have unrestricted European-style changes. Great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Chinese modified their garments by themselves using the pattern making they learned from the Europe.

*Key words:* Chinese costume(중국 복식), qipao(기포), Chinese women's clothing(중국 여성복), 20th century fashion(20세기 패션),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ulture(서구문화의 유입).

본 연구는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sup>†</sup> 교신저자 E-mail : khlee@swu.ac.kr

## I. 서론

고대부터 중국<sup>1)</sup>과 서구<sup>2)</sup>는 이미 서로의 문화를 주고 받아왔으며, 이러한 외래문화의 유입은 저마다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관습 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문화 교류의 역사 속에서 중국인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중화족과 아민족을 구별하는 민족의식의 바탕 위에서 발전한 세계 질서 속에 파묻혀 오로지 중화사상에 기초하여 중국이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에 대하여 자만하였다. 그들은 서구인을 아시아의 주변국처럼 오랑캐로 여겨 ‘양이(洋夷)’라고 불렀으며<sup>3)</sup>, 심지어 서구인들의 외모를 기이하게 여겨 서구인을 옷웃거리로 여겼다<sup>4)</sup>. 그러나 당대(當代) 지식인인 황승도는 중국과 서구를 오랑캐라고 구분짓는 것이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무릇 서구에서는 정치가 공명한 나라는 문명적이라고 말하는데 서구 제국을 그렇게 부른다. 그 밖에 중국과 터키, 페르시아는 반문명적이라고 말한다. (중략) 서구인은 중국 보기를 오랑캐 보듯 한다.”<sup>5)</sup>고 서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하였다.

더욱이 아편전쟁 이후 서구 침략에 의해 당시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과는 전혀 다르게 서구의 발달된 기술과 산업이 밀려 들어왔고 서구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문화와 제도가 함께 유입되었다. 서구 과학기술 및 사회제도의 도입과 문화의 전파는 관념면에서 서구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였고, 서구의 충격 하에 진보적인 중국 지식인들은 국제 정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화이관(華夷觀)의 낡은 관념으로는 청대에 붙어 닦친 서구의 세력에 대처할 수 없고, 마땅히 현

실을 직시하여 전통적 이적(夷敵)관을 깨고 서구가 중국보다 우월한 면이 있음을 인정<sup>6)</sup>하게 되었다.

20세기 전반기 서구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서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자국 문화와 서구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해야하는지가 문제로 대두되었고, 복식문화도 예외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한 분야인 복식에서 중국이 서구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조화는 만남에서 시작하여 충돌이나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이해와 수용에 따라 조화를 이룬 새로운 양상의 문화를 창조해 내게 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라 20세기 전반기 중국 여성복에 나타난 서구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서구 복식의 수용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서구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와 이론을 바탕으로 복식문화에 나타난 중국인의 서구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대화 과정에서 복식에 나타난 중국인들의 서구문화에 대한 태도를 밝혀냄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복의 현대화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와 현대화를 위한 방향 제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중국의 역사, 사상, 문화 및 복식 관련 국내의 전문서적 및 논문과 사진 및 그림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한 문헌 연구이다. 연구범위는 중국의 서구 침략에 의한 서구화 물결에 따라 과거 전통복식으로부터 획기적인 변화 및 완전한 서구식 복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도기적 혼동을 보인 아편전쟁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서구문화의 유입

1) 중국이라는 용어의 국가 개념은 네르친스크조약(1689년)의 서두에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20세기에 들어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 22으로 중국이란 국호가 사용되었다(崔韶子, “中國에서 본 西洋,” 동양사학연구 80집 (2002), p. 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60년 이후의 청대 및 민국시기의 중국 복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중국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2) 여기서 서구(西歐)는 서구라파(西歐羅巴)를 줄인 말로 구라파는 유럽의 한자음을 빌려 쓴 표기다. 또한, 서양은 미국을 포함한 유럽을 가리킨다(서구와 서양, (2004.7.5), 한겨레). 그러나 중국에서 서양이라는 용어는 서쪽에 있는 큰 바다를 뜻하고 그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좁은 의미로 서쪽에 있는 영역을 뜻하는 서구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崔韶子, “中國에서 본 西洋,” 동양사학연구 80집 (2002), p. 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쪽에 있는 영역이라는 뜻으로 서구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3) 김형석,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중관계와 중국 선교의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4호 (1995), p. 266.

4) 신승하 저, 근대 중국의 서양인식, (서울: 고려원, 1985), p. 10.

5) 金巖惠, “19세기 후반 중국 지식인의 세계인식과 서학 수용,” 중국근현대사연구 16집 (2002), p. 42.

6) *Ibid.*, p. 43.

이 차단되기 시작한 1949년 공산국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된 시기까지 20세기 전반기의 여성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 II. 중국의 서구문화 유입

### 1. 중국의 서구문화 유입 역사

중국이 서방<sup>7)</sup>에 처음 알려진 시기를 살펴보면 기원전 말기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확실한 근거 없는 미개인의 나라라는 인식으로 중국을 세레스(scercs), 세라(sera), 즉 ‘비단국인’, ‘비단나라’<sup>8)</sup>라고 불렀던 것을 시작으로 한다. 같은 시대 서방 세계에 대한 중국측 지식은 전무한 상태였으며, 한대에 이르러 서부 중앙아시아에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연경 지방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게 됨을 계기로 고도의 문명사회 즉, 서방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존재 사실을 시작으로 중국인은 서구에 대하여 서쪽 변방의 먼 오랑캐 국가라는 막연한 지식만으로 서방 국가를 판단했으며, 이러한 불충분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6세기 말에는 서방의 헬레니즘 문화가 간다라식 중국 미술과 같은 예술 양식에도 영향을 주면서 점차 서방의 문화가 전해지게 되었다<sup>9)</sup>.

이러한 서방 국가의 문화는 육로나 해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국 고대 역사상 외래문화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당대에는 흥해로부터 중국 남부에 걸친 대규모 무역 공동체를 형성한 아라비아 상인들이 진출해 서방의 문물을 전해왔다. 또한, 7세기에 비잔틴 제국의 침입으로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유민이 중앙아시아로 망명

하였고, 마침 당에서는 이민족에 대한 개방 정책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나타나서 이국의 문화를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이들이 가져온 문화를 흔쾌히 수용하였다. 고대 중국의 국제적 상업 도시였던 당의 수도 장안에는 각국에서 온 망명객, 사신, 유학생, 승려, 직업 예술인, 상인 등 왕래하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sup>10)</sup>.

당대 이후, 중국과 유럽 간의 최초 해상 직접 교류는 포르투갈인의 중국 발견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공식적 방문은 1517년 안드라데를 특사 자격으로 파견하면서 부터였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관습이 중국 관습과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중국의 오해를 유발했으며, 이것은 양 국민간의 상호 불신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포르투갈인의 출입국 일체를 금지시켰고,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출현하면서, 포르투갈과의 이권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자 이것을 지켜본 중국인들에게 서구는 미개의 야만인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sup>11)</sup>.

그러나, 16~17세기 명대 중엽부터 펼쳐진 천주교 예수회의 지식층이었던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중국 포교 활동으로 인해 문예부흥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던 서구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중국에 전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중국은 서구의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명·청대에 서구 과학기술의 전파는 일정한 종교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정한 일부 지식인에게 한정되었을 뿐,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다가 1840년에서 1842년까지 영국과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서문화의 본격적 충돌과 구국을 위한 중국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서구문화의 학습 및 수용을 촉발하였다.

7) 여기서 서방은 서구를 포함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쪽 국가를 칭하며 고대 서방의 범위는 서호라 일컫던 중앙아시아 일대의 국가나 인도, 쿠산, 사산조 페르시아 등 서아시아 제국을 칭하며 당(唐)대 이후에는 돌궐, 위그르, 티베트 지역까지 범위가 확산되었다(김소현, *실크로드의 복식 호부*, (서울: 민속원, 2003), pp. 23-25). 그 후 7, 8세기부터 페르시아 및 아라비아 국가와 교역이 전개되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개념을 넓혀갔고 13세기 징기스칸에 의해 서방은 서쪽의 우크라이나를 지역까지 포함되게 되었으며 마르코 폴로의 동방원정에 의해 중국과 서구에 이르는 넓은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W. Franke 저, 金源模 역, *동서문화교류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2), p. 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 국가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서쪽 국가는 서방이라고 하며 13세기 이후 서방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축소되어 청대에 와서 유럽을 칭하는 서쪽 국가에 대하여는 서구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

8) W. Franke, 저, 金源模 역, *동서문화교류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2), p. 1.

9) *Ibid.*, pp. 2-8.

10) 김소현, *실크로드의 복식 호부*, (서울: 민속원, 2003), pp. 23-25.

11) W. Franke 저, 金源模 역, *Op. cit.*, pp. 36-38.

그러나 서구보다 열세한 군사력과 과학기술 지식의 부족으로 아편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이를 계기로 구국을 위한 양무운동(洋務運動)이 일어나게 되었다. 중앙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양무파 관료들은 1860년 외국어, 군사 기술 교육을 위한 특수 기관을 설립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등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서구문화의 한 표면적 현상인 과학기술 학습을 위주로 하면서 그 외 부분적으로 종교, 역사, 정치 등과 관련한 서구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sup>12)</sup>.

또한, 청대의 관료들은 서둘러 서구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한편, 전쟁에서 필요한 각종 화약과 총탄, 총포류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려 하였다. 1861년 서구식 무기 제조 공장인 안경내군계소를 설립하고 1862년에는 상해양포국을 설립한다. 이들 군수공장은 서구식 총포를 모방하여 제조하는 소규모였으나, 1865년 강남제조총국이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군수공업의 육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1894년까지 총 24개의 군수공장이 전국 각지에 건설되었고, 기술적 낙후와 비효율적 경영에도 불구하고 군수공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군수공업과 연관된 산업 및 광업 등이 발전했다. 공장에 부설된 번역관과 교육기관을 통해 서구의 근대 과학기술 서적이 번역 또는 보급되었다. 교육 시설에서 서구 과학 및 사상에 대한 교육과 번역에 기여한 것은 대부분이 선교사들이며, 서구의 기계와 외자 기구가 중국에 들어오자 필수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했다. 1861년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sup>13)</sup>의 설립을 계기로 서구와의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열림에 따라 이에 필요한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862년 총리각국사무아문의 부속 기관인 동문관이 북경에 설립되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만주 귀족의 어린 자제들을 선발하여 가르쳤다. 동문관 외에도 1863년 상해에 광방문관이, 1864년에 광주에 광주동문관이 각각 설

립되어 외국어를 비롯한 서구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지식이 중국에 전해지게 되었다. 군수 및 교육 이외 상업부분에도 근대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1881년 이홍장에 의해 개평 탄광이 생산을 개시되어 질이 좋으면서도 값이 싼 석탄이 많이 생산되어 외국산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개평 탄광의 경영 상태는 다른 관독상판 기업에 비해 안정적이었으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경영 부진과 근대 공업의 체계적 발전 지체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체계적인 광공업의 육성은 1880년대 후반에 한양제철소가 생기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sup>14)</sup>.

1878년에 방직회사인 상해기기직포국(上海機器織砲局)이 기계는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매일 포 600필씩 생산하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생산을 하였다. 전신은 1871년에 외국회사가 홍콩, 마카오, 상해와 상해, 나가사키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전화는 1881년 상해에서 개설된 것을 비롯하여 1905년 북경과 천진간의 장거리 전화가 가설되었다. 또한, 1876년 상해 교외지역에 중국의 최초 철도가 건설되었으며, 이는 1865년에 도입한 영국의 기술로 설립된 회사였다<sup>15)</sup>.

청대의 무너짐과 동시에 1911년 서구식 제도를 모방한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탄생하면서 서구의 과학기술이나 정치 제도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라 서구의 문화 사상, 윤리, 도덕 즉 의식 형태의 모든 영역의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서구문화의 전 분야에 대한 수용이 시작되었다. 1919년 이후에는 학생과 상인,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기존 정부 관원들이 아닌 신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조의 현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던 5·4 운동이 일면서 보다 발전된 서구문화 유입과 함께 현대식 중국 사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현대식 중국 사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더욱 발전된 서구의 기술을 서구문화를 중국에 빠

12) 김혜준, "서방문화 수용과 중국 사회사상의 변화," 전망 39권 (1990), p. 71.

13) 총리각국사무아문은 서구 각국을 종래처럼 중국과 서구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며 중국은 각 세계의 우위에 있다는 '화이'(華夷)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다루기 위해 1861년 중앙정부에 설립한 외교기구였다.

하자마 나오키 외 저, *데이터로 본 중국근대사*, 신일섭 역 (서울: 신서원, 1999), p. 27.

14)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중국사 V*, (서울: 지식산업사, 1989) pp. 184-185.

15) 하자마 나오키 외 저, *데이터로 본 중국근대사*, 신일섭 역 (서울: 신서원, 1999), pp. 48-49.

르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국제적 도시로 성장한 상해에서는 서구문화를 빠른 시일 내에 모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외부 전쟁 및 내부 전쟁이 가속화 되고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성립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된 중국은 서구문화의 유입을 단절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 2. 중국인의 서구문화 수용의 태도

고대부터 중국은 수천 년 이어져 온 중국인 나름대로의 세계관에 따라 이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독자적인 중국만의 수용 태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서구문화 접촉 및 분출의 유입은 결코 중국 문화의 기반을 뒤흔들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수용되어진 것으로, 중국이 인간 세상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고정된 세계관<sup>16)</sup> 내에서 용인되어진 것이다. “중국이야말로 모든 문화, 문명의 유일한 원천지라고 생각하였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여러 오랑캐가 중국을 에워싸고 있다.”<sup>17)</sup> 또는 중국은 인간 세계의 중심지이며 모든 인류 문화와 문명의 원산지이므로, 세계의 형세는 마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성군의 배열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일수록 문명 수준이 저급화되어 간다는<sup>18)</sup> 세계관에 따라 그들만의 세계관 속에서 변방의 이민족과 문화적 격차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천하의 중심이며,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였다<sup>19)</sup>. 아렇듯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의 우월감과 자신감에 위기감을 안겨주었던 상대가 있었다. 19세기 서구 열강

의 침입으로 영국과의 아편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패배 충격 속에서 1842년 굴욕적인 남경조약을 체결당하였다. 결국 중국은 계속되는 열강의 침입에 처하여 영토가 할양되고 양귀(洋鬼)가 양대인(洋大人)으로 변화하는 엄청난 충격을 겪게 되자,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서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sup>20)</sup> 구국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해국도지』를 저술하여 중국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에게까지 서구를 이해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위원은 “이(夷)를 배우지 않으면 이(夷)를 막을 수 없다.”<sup>21)</sup>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입장에서 서구의 기계문명을 도입하여 중국의 사강을 도모하려는 양무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중국 전통의 문화와 제도를 본체(本體)로 하고, 서구의 기계문명을 말기(末技)로 이용한다는 중체서용(中體西用) 사상에 근거를 두었는데, 이 주장은 양무운동 이후 신해혁명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향하는 중국의 서구문화 수용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중체서용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우수한 고도의 문명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는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살아간다는 아주 독선적인 중화주의 사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래문화의 선택적 수용 방법을 의미한다<sup>22)</sup>.

이러한 중국인들만의 독특한 태도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침략에 의한 외래 문화 수용에도 적용되었다. 서구의 침략이 중국에 심한 해를 가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진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중체서용에 근거한 그들의 수용 태도에 따라 서구의 발달된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이 낙후된 상황을 바꾸어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은

16) 고대 중국인들은 천하사상(天下思想)에 따라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천하’란 원래 서주(西周)시대의 최고 신이었던 천(天)의 주재 아래 있는 모든 영역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서주의 통치력이 미치고 있던 국가 질서권이었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방신이 주재하는 변방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내는 개념이었다(역사직 백락에서 본 한중관계와 중국 선교의 문제, 한국기독교역사 4호 (1995), p. 263).

17) W. Franke 지, 金源模 역, *Op. cit.*, pp. 5-6.

18) 윤내현, *중국의 천하사상*, (서울: 민음사, 1988), pp. 11-12.

19) 강진석, *중국의 문화코드*, (서울: 살림출판사, 2004), p. 73.

20) 김형석, *Op. cit.*, pp. 266-267.

21) *Ibid.*, p. 267.

22) 김승배, “서구문화 수용 인식 차이가 한국·중국·일본의 근대 교회 건축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교회사연구* 16집 (2001), p. 224.

완전히 중국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서학수용만이 부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임을 직시<sup>23)</sup>하고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중국 사회 내에 서구문화를 추종하는 풍조가 만연해지자 이에 문화에 대한 견해와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견해 속에서 본체론자(本體論者)와 서화론자(西化論者)의 논쟁으로 대립되었다. 이 병인<sup>24)</sup>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본체론자들은 모든 문화를 돌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하나는 자연과학 및 교통, 공업 등은 세계성을 함유한 문화이며, 정치제도, 교육시설, 사교예의, 생활습관 등은 각국마다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 있어 같아질 수가 없고, 같아질 필요도 없는 국가 특성의 문화라고 주장하며, 분리가 가능한 이상 중국의 현재 수요에 맞는 것만 중국의 전통과 서구의 문물에서 골라내어 취하자는 태도를 가졌다. 한편, 서화론자들은 문화는 상호절충의 과정을 겪으면서 융합되어 발전하는 것이기에 중국 고유의 것을 따지고 중국 고유의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중국의 과거는 서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국과 서구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으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문제는 중국이 낙후되었다는 점과 서구의 발전 정도를 인정하면서도 왜 서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었다. 낙후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발달한 서구는 특수한 문화였으며, 이러한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국의 낙후된 상황을 벗어나자는 입장이었다.

서구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서구에 대한 자신보다 뛰어나고 강한 자라는 인식과 함께 완전한 '배척'이 아닌 '수용'의 길을 택하였으며, 또한 서구문화에 심취하여 완전히 그 속에 매몰되지도 않았다<sup>25)</sup>. 중국과 서구의 장점만을 취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자는 주장이건, 서로간의 문화는 상호 절충되면서

융합되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건 간에 그들은 오랜 시간의 숙성 기간을 거친 후에 서구문화를 훌륭하게 '중국화'해 냈다. 여기서 '중국화'란 근대의 '중체서용'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중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존재 기반과도 같은 자국의 문화를 저버리지 않으며 그들에게 있어 중국의 문화는 영원한 '체(體)', 즉 자신의 몸이자 존재 자체<sup>26)</sup>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중국에 유입된 고급 서구문화는 모두 예외 없이 중국인의 특수한 자만심에서 비롯한 문화수용 태도에 의해 외래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개조하여 자신들의 전통 문화의 일부분으로 귀속시키려는 태도였다.

이러한 특성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나타났던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오리엔탈리즘에서 타자였던 동양이 자신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저항 담론으로, 일종의 역오리엔탈리즘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옥시덴탈리즘은 중국 내의 자국 국민에 대한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구성되는 서구라는 타자는 동양의 서구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중국적 자아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민중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의 상상력에 의해 자기식대로 서구를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즉,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서구의 경험들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의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서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주체(중국)에 의해 상상된 것으로서 서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sup>28)</sup>. 즉, 서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보자랐던 근대 중국은 서구의 문화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여 낡은 전통과 비교하며 서구의 본질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을 열심히 습득하였으며, 그들의 전통을 나름대로 해체하고 서구식으로 변화시키면서 근대성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단, 이들에게 아무리 서구의 문화가 우월해 보이

23) 金慶惠, "19세기 후반 중국 지식인의 세계인식과 서학수용," 중국근현대사연구 16집 (2002), pp. 39-50.

24) 李內仁, "중국 중심의 보편성, 서구중심의 특수성," 중국근현대사연구 9집 (2000), pp. 71-78.

25) 강진석, *Op. cit.*, p. 74.

26) *Ibid.*, pp. 76-77.

27) 샤오메이천 저, 옥시덴탈리즘, 정진배·김정아 공역 (서울: 강, 2001) p. 13.

28) *Ibid.*, p. 252.

〈표 1〉 중국 근·현대 서구문화 유입의 시대적 배경과 수용 태도

시간적 범위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양무운동 시기	청말기부터 1911년 중화민국 탄생 이후의 신해혁명기	1919년 이후의 5·4운동 이후의 신문화운동기
시대적 배경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 발발 -1844년 미국, 프랑스와의 불평등 조약 체결 -1860년 양무운동의 시작	-1895년 청일전쟁 패배 -1899년 미국의 강제적 문호 개방 선언 -1905년 상해 총상회의 외재상품 배척 운동 결의 -1911년 신해혁명 발생 -1912년 최초 공화국인 중화민국 탄생	-1919년 5·4 운동 발생 -1937년 중일전쟁 시작 -1949년 공산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서구문화의 유입	-군수 공장 및 서구식 부기 제조 공장, 탄광, 철도 산업, 조선 기술, 전보 및 전기 통신 기술의 유입 -서구식 방직 기계의 도입 -서구 광장이 생기기 시작함 -유학생들에 의한 서구문화의 간접적인 전달	-서구식 교육 제도 도입 -외국 재단의 학교 설립 -영문간행지의 발행 -서구식 합법제도 수립 -영화관의 서구영화 상영	-서구식 마인 선발 대회 개최 -각종 여성 월간지 출판 -상해의 국제적 패션쇼 개최
서구문화의 수용 태도	-서구문화에 대한 전면적 인식이 결핍 -단순한 표면적 현상인 과학기술에만 관심	-개혁의 필요성 인식 -서구의 과학기술은 불분 정치제도 및 철학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부분의 수용 -시구에 대한 사상적 논쟁의 시작 -중서문화의 차이 비교 논쟁	-송양풍조의 만연으로 서구문화의 적극적 수용 -과학기술 및 정치와 문화 사상·윤리 도덕 즉 의식 형태의 모른 영역 수용 -철충 조화론, 새로운 중국문화 건설문제, 중국 본체론자와 서화론자의 논쟁

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문화가 존재 근거(體)를 이루어야 하며, 외래문화는 단지 응용(用)의 대상이자 적용의 도구일 뿐이라는 태도 하에 서구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중국인의 서구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수용 태도는 문화적 원형(서구)과 그것의 수용 과정에서 좁게는 아편전쟁 이후 중국과 서구의 교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부터, 그리고 넓게는 중국이 외래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온해은 문제<sup>29)</sup>이다.

### III. 중국의 복식사적 배경

#### 1. 청대 여성 복식의 개요

청대의 복식은 만주족의 특징을 보유한 의관제도 불 고수하면서 한족의 전통 양식을 수용하여 청대의 독특한 복식양식을 확립하였다<sup>30)</sup>. 청대 여성 복식의 평상복으로 기포(旗袍), 샴(衫), 오(襖), 군(裙), 마갑(馬甲), 고(袴) 등을 입었으며, 그 중 기포는 장포(長袍)가 후대에 기포로 발전하면서 청대 부녀의 주요 복식이 되었다<sup>31)</sup>. 비교적 뽕이 좁고 만주의 지역적 특징상 활동에 편리하며 방한의 목적이 담긴 만주족의 포라는 뜻의 기포가 청대 여자 평상복의 주체가 되었으며, 1911년 이후에는 한족 여성들도 만주족의 복식인 기포를 입게 되면서 후대 중국 복식의 대표적인 옷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포(그림 1)는 20세기 전반기 현대식 중국 복식

29) Ibid., p. 257.

30) 周飛, 高春明, 中國歷代服飾, (上海: 學林出版社, 1983), p.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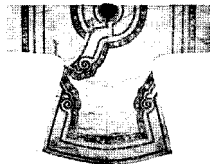
31) 藏麗春, 中西方女裝造型比較, (北京: 中國輕工業出版社, 2001), p. 49.

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의복의 앞과 뒤, 소매 모두 하나로 재단하며, 어깨와 소매, 몸통이 모두 직선 형태이다. 의복의 여밈 부분인 대금(大襟)<sup>32)</sup>이 우임식으로 한족 전통의 포 형식과 일치한다. 입령(立領)으로 스탠드칼라가 달려 있으며, 요령을 잡아들어 올리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배듭단추인 반뉴(盤紐)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역할 외에 장식적인 역할도 하였다. 평면적 구성의 속성상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차(開衩)라고 하여 의복의 우 또는 좌우에 트임을 넣었다<sup>33)</sup>.

오(그림 2)는 명대의 포삼(袍衫)양식과 같으며, 처음에는 수구가 넓었으나 점차 좁은 형태가 되었다. 가장 바깥에 걸치는 옷으로 오는 것의 높이가 높은 것, 낮은 것, 없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아랫단을 둥글린 경우는 소매의 폭이 크다. 반드시 양 옆에는 트임을 주고 끈변을 장식한다. 나갑(그림 3)은 배심(背心)이라 하기도 하며, 처음에는 왕과 공주의 복식이었으나 차차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였다. 길이는 짧은 것도 있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으며, 남녀 공통이나, 복식의 크기 및 색상과 끈변의



〈그림 1〉 기포(旗袍)(中國歷代服裝, p. 316).



〈그림 2〉 양변단오(鑲邊短襖)(中國歷代服裝, p. 289).



〈그림 3〉 대금마갑(大襟馬甲)(中國歷代服裝, p. 287).



〈그림 4〉 홍군(紅裙)(中國歷代服裝, p. 288).



〈그림 5〉 수금은장고(綉金銀長褲)(中國歷代服裝, p. 289).

장식으로 구분된다. 포위에 착용하고 칼라는 입령식과 없는 것이 있다. 초기에는 조정의 주요 관원들만 입었으나, 후기에는 모든 관료와 남녀노소가 입었고 비정식 예복으로 착용하였다.

군(그림 4)은 오나 마갑의 아래에 둘러 입었으며, 길이는 발목까지 오고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색은 청색과 흑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경사 때에는 홍색을 사용한다. 과부는 흑색을 사용하였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오래되거나 시부모가 살아 계시면 청색이나 하늘색을 입었다. 청대 중기 이후에는 각종 주름을 많이 잡은 새로운 양식이 많이 나타났다. 고(그림 5)는 오나 포 아래에 착용하며, 평상시 북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행하였다. 청 말에 이르러서는 고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수를 놓거나 각종 화문(花紋) 장식을 하였다<sup>34)</sup>.

## 2. 20세기 전반기 중국 복식 문화사적 배경

20세기 전반기는 복식사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또는 민족과 민족 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였다. 20세기에 들면서 중국 복식의 발전은 서구 복식의 특징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습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구 여성복의 흡수로 인해 중국 전통 복식문화가 더욱 풍부해지고 중국 여성이 기능과 개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자적인 특색 있는 현대식 중국 복식문화를 형성하였다. 20세기의 중국 복식사에 있어 대외적인 교류관계 변화를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20세기 전반기이고, 둘째가 50년대 이후의 신중국 성립기, 그리고 세

32) 王傳銘, 漢英服裝服飾詞匯, (上海: 紡織大學出版社, 2002), p. 126.

33) 戴迎春, *Op. cit.*, pp. 4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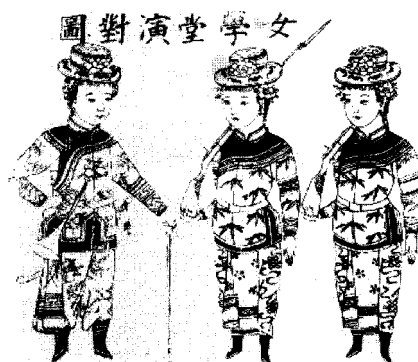
34) 周飛, 高春明, *Op. cit.*, pp. 262-263.



번째가 70년대 말부터 진행된 개혁개방시기에서 현재까지이다. 그 중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20세기 전반기의 패션은 서구 상품과 패턴, 형태, 착용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은 서구 복식을 흡수한 시기였고, 당시의 서구식으로 변형된 중국 복식은 개척주의를 표방하는 문화적 전달대개로서의 역할도 하였다<sup>35)</sup>.

일찍이 포명신(包銘新)이 “20세기 상반기의 중국인은 역사상 큰 변화와 혼란, 전쟁과 고난을 겪었고, 사람들은 모두 정치나 경제의 각도에서 이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종종 이 시대의 사실적 고증은 연구하면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시기가 중국 복식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다.”<sup>36)</sup>고 말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중국 복식사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20세기 전반기는 중국과 서구가 넓고 깊은 교류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서구의 복식이 중국 복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복식과 중국 복식이 가시하고 있는 전통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서구 복식 외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복식이 중국의 일반 민간생활에 까지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세계상의 서구 양식과 중국 양식의 절충을 의미하기도 하고, 중서교류(中西交流) 및 시간적으로 고급(古新)의 만남과 절충, 전환을 의미하기도<sup>37)</sup> 하기 때문이다.

1840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신식군대가 창설됨에 따라, 군복을 유럽식 군복으로 바꿔 서구 의복인 좁은 팬츠와 재킷, 서구식 모자로 갖추어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되었다<sup>38)</sup>. 이는 당시 몰락해 가는 청대에 자강(自強)국가라는 인식과 더불어 환영을 받게 되며, 신식 여학교에서도 유럽 군대식 유니폼을 모방하여 변형한 기포를 착용하였다. <그림 6>에서 보우터(boater) 모자를 쓰고, 가죽 신발을 신고, 신무기를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39)</sup>. 또한, 전통복식에 서구적 취향이 나



<그림 6> 여학당의 군복(China Chic, p. 128).

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대와 1920년대 초기는 도시 여성들 사이에 한때 ‘문명신장(文明新裝)’이라는 새로운 복장이 유행하였다. 서구의 새로운 의상인 문명신장은 서구에서 유학하던 학생이나 중국 본토 상류층 집안의 여학생들이 앞장 서서 입었고, 도시 여성들이 이런 유행을 따라 했다. 20년대 여성 복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서구 의복을 수입하여 그대로 착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식도 <그림 7>에서와 같이 ‘문명혼례(文明婚禮)’라 하여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서구에서 가져온 웨딩드레스를 착용하였으며, 일부 영화배우들이 이브닝드레스를 착용하여 중국 복식의 종류와 디테일이 보다



<그림 7> 문명혼례의 한 장면(中國名媛, p. 196).

35) 張竟琮, 西服東漸, (合肥: 安徽美術出版社, 2002), p. 1.

36) 包銘新, “收藏旗袍,” 上海服飾 1995 (4), p. 19.

37) 張愛玲, 中國現代服裝史上的三次對外交流, (上海: 紡織學院, 2000), p. 60.

38) Valerie Steele & John S. Major, China Chic: East Meets West, (London: British library, 1999), p. 120.

39) Valerie Steele & John S. Major, Op. cit., p. 128.



〈그림 8〉 리산페이(李珊菲)의 일러스  
트, 1926(西服東漸, p. 26).

나채로워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 디자이너 이산비(李珊菲)는 프랑스 디자이너 폴 푸아레(Paul Poiret, 1879~1944)의 디자인을 모방한 하렘 스커트(harem skirt)를 소개<sup>40)</sup>(그림 8)하기도 하는 등 중국 복식도 당시 국제패션 조류와 같이 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는 근대 중국 여성복의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시기로 그 중에서도 1930년대는 최고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어떠한 의복으로도 청대의 전통 복식인 기포가 서구식으로 바뀌게 된 현대식 기포를 대신할 수 없었던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가 현대식 기포의 유행이 시작된 시점이라면 1930년대는 현대식 기포가 지금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현대식 기포의 길이는 무릎길이이고, 소매길이는 팔꿈치까지였으며, 허리 부분은 약간 들어가게 만들어졌다. 1930년대 중반기에서 1938년까지의 현대식 기포는 길이가 길고 몸에 딱 맞게 만들어져 여성들이 날씬하게 보이는 게 유행하였다. 특히 1934년 전후의 현대식 기포는 치마단의 길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으며 적어도 발목부분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었다<sup>41)</sup>. 이 당시의 현대식 기포는 바로 현재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모티브로 삼거나 또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차이니즈 칼라와 피트하며 긴 실루엣을 특징으로 하는 30년대 만들어진 ‘상해식기포(上海市旗袍)’라고

일컬어졌다. 상해식기포는 현대 중국 복식의 완성 단계의 복식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 중국에 서구문화를 전래와 국제패션 교류의 매체 역할을 했던 외국인과 외국 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의 선교사가 전족의 악영향을 널리 알림으로써, 여성을 전족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여 여성해방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구광장 내에서의 외국인과의 자유무역이 성행하였고, 파티 등의 서구문화가 소개되었다. 할리우드 영화 및 영화배우가 등장하고, 영화관이 설립되어 유럽 및 미국의 영화가 상연되고, 영화 포스터 및 영화 배우의 그림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림 또는 사진 속의 배우들의 복식이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림 9〉에서 당시 영화배우 량새진(梁賽珍)이 서구에서 수입해 온 이브닝드레스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영문간행지가 발행되면서 『NORTH CHINA DAILY NEWS』의 주요 기사 내용에는 ‘NEW YEAR, NEW SHOES, NEW PRICE’, ‘CLOTHES FOR THE NEW YEAR’라는 영문으로 서구식 구두가 소개되었고, 1901년 창간한 『SHANGHAI TIMES』에는 ‘DIVERSE TOPICS FOR WOMAN AND HOME’, ‘MODES OF THE WOMEN’이라는 복식 란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그 외 『THE SHANGHAI SUNNING TIMES』도 발



〈그림 9〉 영화배우의 이브닝드레스 착용 모습(西服東漸, p. 13).

40) 張亮琮, *Op. cit.*, p. 25.

41) *Ibid.*, pp. 15-16.



〈그림 10〉 성마리아 중학교의 외국인 교사들(西服東漸, p. 19).

행되었다. 교회학당 및 복식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상해에 교회학당인 성약한(聖約翰)대학교 및 성마리아(聖瑪利亞)중학교가 설립되었고, 프랑스인이 설립한 서구식 재단법을 가르치는 복식전문학교인 시정재단학교(時裝剪裁學校)가 있었다. 이들 학교의 교사 역시 외국인으로 이들이 전해온 서구 복식 역시 당시 상해 유행에 한 몫을 하였다<sup>42)</sup>. 〈그림 10〉을 보면 성마리아 중학교의 외국 교사들이 서구 복식을 착용하고 중국인들을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구 양식의 전달자적 역할을 한 중국인 및 중국기구를 살펴보면 양복 착용을 일상복으로 한 외국회사의 직원이 있으며, 서구식으로 변형한 기포를 입고, 서구식 이브닝드레스를 착용하며 유행의 선도적 역할을 했던 기녀 및 부녀가 있다. 초기 당시의 일반 여성들은 아직도 넓은 소매의 긴치마를 갖춘 기포를 입었으나, 영화배우 및 가수들은 이미 서구식의 기하학적 모티브의 개량 기포를 입거나, 서구의복을 직접 착용하기도 하면서 서구문화를 대중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건물, 공예미술 등 서구식 기술을 습득하여 서구식 기포를 수목으로 그리는 화법이 아닌 사실적인 묘사의 서구식 화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화가가 새로운 유행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복식제조의 공업화를 이룩한 복식제조공장 역사 유행을 널리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문매체로 1877년부터 1949년까지 출판된 화보집만 800여 종에 이르며, 그 중 중문 여성월간지가 600종에 달했다. 중국에서 처음 여성 복식의 최신 유행 양식을 종합적 화보집으로 1926년 창간된 「량우(良友)」에서는 당시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화가가 그린 착장 모습과 그림에 설명을 넣어 실었으며, 1929년 『상해 여성 패션 의상』의 제 36집에 파리, 뉴욕 등지의 패션쇼에서 나온 신식 유행을 실어 중국 부녀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sup>43)</sup>. 달력 역시 광고수단 및 상업적 미술품으로 사용되어, 당시 여성의 유행 복식을 실었다. 기타 광고로는 화장품, 향수, 담배갑 등 여성전문용품에 여성 그림을 그려 광고 효과와 함께 당시 패션을 유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30년 처음으로 상해국제패션쇼가 열렸으며, 34년, 36년에도 열리면서 서구에서 유행하는 최신 스타일이 빠른 시간 내에 상해에서도 유행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sup>44)</sup>.

#### IV. 중국 여성 복식의 유형별 특징

청 말부터 신중국 성립 이전까지의 중국 근·현대 복식은 대체로 전통 복식과 서구 복식의 체계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중체서용’의 사상에 따라 전통 복식을 중심으로 서구 복식의 조형적 특징들을 모방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의 서구문화 유입에 따라 중국 복식에서 나타난 서구 복식의 수용 양상을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유형별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류 기준은 김승배 교수<sup>45)</sup>가 중국의 근대 건축을 ‘서양무식(西洋樓式)’, ‘의양풍식(擬洋風式)’, ‘의화풍식(擬華風式)’<sup>46)</sup>이라고 분류한 것과 장경경(張景景)의 서구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나타난 20세기 중국의 복식을 연구한 책<sup>47)</sup>에서 복식을 ‘전면서구식(全面西歐式)’, ‘서풍취불식(西風吹拂式)’, ‘중서

42) *Ibid.*, pp. 18-19.

43) *Ibid.*, p. 29.

44) *Ibid.*, pp.21-34.

45) 김승배, “서구문화 수용 인식 차이가 한국·중국·일본의 근대 교회 건축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교회사 연구* 16집 (2001).

합용식(中西合融式)<sup>48)</sup>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의 복식을 크게 '중국전통식(中國傳統式)', '중서절충식(中西折衷式)', '중서융합식(中西融合式)', '서구개량식(西歐改良式)<sup>49)</sup>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중국전통식(中國傳統式)

근대화의 전개에 따라 복식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었으나, 뿌리 깊은 중화중심 사상의 영향으로 청 왕조의 복식과 복식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을 유지하였다. 청 말에 양부관원들의 서구 전문인의 인재 양성을 위한 유희생의 파견과 정부의 신식근대의 창설로 인해 서구 의복 즉, 양복이 처음 출현하여 착용되기는 했으나, 세인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사게 되어 다시 청대의 복식을 착용하여야 했다. 즉, 서구 복식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천 년 이어져온 전통 관습으로 서구 복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통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전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복의 앞과 뒤, 소매를 모두 절개선이 없이 하나로 재단하는 평면식 직선 재단법을 사용하며, 여밈 방식도 전통식 우임이다. 또한, 반뉴관 사용하여 의복을 고정시키며 전통적인 길상문양의 수가 놓여진다. 칼라, 수구, 대금에 자수가 들어간 곤변이 있고, 의복의 우 또는 좌우에 트임을 넣는다.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그림 11>의 관의대수(寬衣大袖)형의 포 형식의 기포에서 중국전통식의 특징인 직선적인 평면식 재단법을 사용하고 우임이



<그림 11> 만주 여성의 전 <그림 12> 만다린칼라의 치통식 치파오(China Chic, 파오(China Chic, p. 47), p. 46).

며 자수가 들어간 넓은 곤변이 의복의 가장자리에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좌우로 트임이 있다. <그림 12>는 좁고 긴 형의 기포로 역시 어깨, 소매와 몸통을 직선으로 처리하였고, 우입식으로 다섯 개의 반뉴관 의복을 고정하였다. 자수가 들어간 곤변을 사용하며 의복의 우측에 트임을 넣은 모습이다. 이 시기의 전통복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서구의 피당적 개방에 의한 전장의 실패로 망국에 이른 당시의 정황을 개탄하여 기포의 본래 착용 민족인 만주족 외에 한족도 착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애국사상이 반영되어 서구 복식보다는 전통 복식을 착용하자는 의미와 함께 한족의 넓고 큰 포보다 몸에 맞는 기포가 활동하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기포가 만주족, 한족의 구분 없이 중국 부녀의 대표적 전통 복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50)</sup> <그림 13>과 같이 1910년에는 비교적 품이 좁아지면서 발목아래 길이로까지 길어진 형태가 나타

46) '서양무식'은 서구 건축을 직접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서구식 교회 건축 유형으로 분류하고, '의양풍식'은 서구 건축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여 흥내 내는 형식으로 서구식 변형 교회 건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의화풍식'은 서구 건축 양식에 중국 전통 양식을 가미시키는 형식의 중·서 절충식 교회 건축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7) 張蕪琮, 西服東漸(合肥: 安徽美術出版社, 2002).

48) '전면서구식' 복식을 완전한 서구 의복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서풍취불'이란 말 그대로 '서구 양식이 스쳐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순수한 중국 전통 복식에 서구식 복식 양식이 스치듯 나타나는 것을 '서풍취불식'이라고 하여 서구식 간접적 변형 복식 유형으로 분류하고, '중서융합'이란 중국과 서구의 복식을 서로 상호 조화, 변형시키거나, 같이 어우러지게 새로 코디하여 입는 것을 말하여 이러한 특징의 복식을 '중서융합식'이라고 분류하였다.

49) 본 연구에서는 '중국전통식'을 고대 복식부터 중국 고유의 복식 특징들이 가미되어 변천되어 나타난 순수한 중국식의 관의(gown)에 해당하는 복식 유형으로 정의하고, '중서절충식(中西折衷式)'을 순수한 중국 전통 복식에 서구식 복식 양식이 스치듯 서구 복식의 외적 형태를 모방하여 나타나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중서융합식(中西融合式)'은 서구 복식의 특징과 중국 전통 복식의 특징의 완벽한 양식적 혼합을 보이는 유형으로 구분하며, '서구개량식(西歐改良式)'은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의 도입으로 칼라, 소매, 다트까지 자유롭게 변형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그림 13〉 만주여성이 착용한 긴 차파오(1910)(China Chic, p. 45).



〈그림 14〉 레이스 장식의 차파오(China Chic, p. 43).



〈그림 15〉 라인 장식의 차파오(China Chic, p. 140).

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0세기 전반기 중국 복식에 있어 중국 전통식은 1910년대까지 전통 기포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폭과 길이에서만 변화를 보인다.

## 2. 중서절충식(中西折衷式)

서구 세력의 침입으로 파동적이며 채국주의적 상태로 개방을 하게 된 중국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유학생 및 서구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전통식 기포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서구문화와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서구 복식의 외형적인 요소만을 그대로 모방하여 중국 복식에 적용하게 되는 ‘중서절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통 복식의 평면 적선 재단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폭을 조절하여 이전의 복식보다 훨씬 피트성을 가미하거나, 서구식의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의 착장 형태로 변화되었다. 또한, 전통복에 서구의 트리밍을 사용하거나 전통복에 서구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서구 복식을 모방하였다. 〈그림 14〉의 경우 폭넓은 바지 위에 기포를 착용한 복식으로 전통식 기포의 곤변에 넓은 전통 자수 장식 대신 서구의 레이스 장식을 단 것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중국 사회에는 레이스 제조 기술이 없었으므로 서구에서 가져와 부착한 것으로 전통 복식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구의 트리밍을 수납하여 의복에 사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

말의 기포를 변형한 여학생 군복에서도 중서절충적 양식을 볼 수 있다. 이는 서구 세력의 군사 침입으로 자연스럽게 서구식 군복을 접하게 됨에 따라 “자국의 군사력을 길러 의세에 대처하자.”<sup>51)</sup>라는 구호와 함께 신식 여학교에서 서구식 유니폼을 모방하여 변형한 군복 형태의 기포이다. 〈그림 15〉의 경우, 단발을 한 신여성이 기포와 바지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곤변에 자수 장식을 없애고 단순하게 선으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의 복식인 양복의 상의와 하의로 구분지어 착용하는 것을 모방하여, 상의로 긴 기포를 착용하고, 하의로 바지를 착용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신해혁명을 전후로 서구에 대한 사상과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복식의 형태인 문명신장(文明新裝)(그림 16)은 양복의 외형적인 모습, 즉, 소매와 품이 피트되며 칼라가 높아진 상의와 치마 또는 바지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두발 장식에 있어서도 서구식으로 앞머리를 자르거나, 머리에 천을 감싸거나, 올린 머리(그림 17)를 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곤변 역시 의복의 품이 좁아짐에 따라 좁은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그림 18〉에서 문명신장과 더불어 서구식 구두와 시계를 착용하고 가슴 원편에 서구식 꽃 브로치의 액세서리를 단 모습을 볼 수 있다.

오(襖), 곤(裙), 마갑(馬甲)으로 구성된 신식 기포에서도 중서절충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복

50) 張浩, 旗袍. (上海: 紡織大學出版社, 1999), pp.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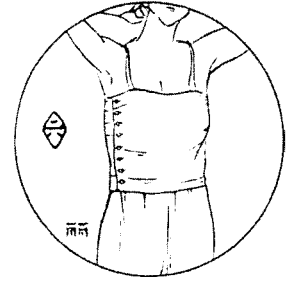
51) 張克瑛, *Op. cit.*, p. 15.



<그림 16> 문명신장(中國歷代服裝, p. 311).  
<그림 17> 문명신장과 함께 나타난 두발 형식(中國歷代服裝, p. 315).



<그림 19> 1920년대 개량 브라, 1927(西服치파오(旗袍) p. i).  
<그림 20> 개량 브라, 1927(西服 東漸, p. 10).



<그림 18> 문명신장의 구두 및 시계 착용 모습 1914 (中國老廣告, p. 132).

식의 현대화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시기인 1920년대에는 서구의 상의와 하의로 나누어지는 투피스 혹은 베스트와 더불어 쓰리피스로 갖추어 입은 모습을 모방하여 전통 복식에서 상의에 해당하는 오, 서구의 베스트에 해당하는 중국의 전통 복식 마감과 하의에 해당하는 군을 착용하게 되었다. 또한, 서구의 드래시한 유행을 모방하여 긴 개더스커트 형태인 군을 착용하여 입었음<sup>52)</sup>을 알 수 있다(그림 19). 긴 개더스커트 형태의 군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전통식의 군의 형태는 앞과 뒤가 볼륨감이 없이 평평하게 재단된 직선 형태의 스커트였으나, 중서절충식에서 나타나는 개더스커트는 볼륨감을 살

린 서구의 스커트를 본떠 만든 새로운 형태의 스커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양에 있어서 서구 복식의 추상 혹은 기하학적인 문양을 중국 복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0>의 개량 브라지어를 보면 20년대 말부터 기포의 형태가 몸에 더욱 피트되면서 서구식 브라지어 및 코르셋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모방하여 중국 전통식 속옷 브라지어에 해당하는 ‘두두(兜肚)’가 서구식 브라지어처럼 어깨 끈을 달고 옆에서 여빌 수 있도록 변형한<sup>53)</sup> 형태로 나타났다. Paul Poiret와 Chanel 디자인을 모방한 기포에서도 중서절충식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 Paul Poiret의 터번과 모피를 단 코트를 모방한 아산비(李珊菲)의 일러스트가 상해 순화양말 공장의 광고 포스터(그림 21)에도 나타났다.



<그림 21> 리산페이(李珊菲)의 일러스트(中國老廣告, p. 132).

52) 戴迎春, *Op. cit.*, p. 114.  
53) 張竟琮, *Op. cit.*, p. 10.

즉, 중서절충식은 서구의 입체재단 이전의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는 양식으로 서구 복식의 외적 디자인 요소가 전통 복식에 용해되지 않고 그대로 첨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복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3. 중서융합식(中西融合式)

중국 전통의 평면 재단법으로만 만들어졌던 중국의 복식에 서구의 다투를 사용하는 입체적인 재단법이 사용되면서, 완벽한 양식의 융합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중서융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평면 재단법과 입체적인 재단법이 함께 사용되나, 차이나이즈 칼라 및 우임 등 전통 복식의 요소는 그대로 지나면서 서구의 재단 구성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대표적 복식인 중서식기포(中西式旗袍)는 서구식 이브닝드레스를 모방하여 기포를 변형한 것이다. 즉, 허리를 중심으로 위는 중국의 전통 복식인 기포의 형태이며, 부드럽고 여성스런 느낌을 위하여 아래의 스커트는 플레어스커트나 개더스커트, 티어드스커트 등 서구식으로 재단하여 허리선에서 연결되게 봉제한 형태<sup>54)</sup>를 이루었다(그림 22). 이와 같은 복식은 당시 영화의 파티 장면(그림 23)이나 광고 포스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의 도입으로 30년대 이후의 기포는 청 말의 기포와 실루엣과 구성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서구복식의 영향을 받아 허리를 좀 더 강조하게 되었다. 다투의 사용



〈그림 22〉 중서식 치파오(西服東漸, p. 25).



〈그림 23〉 영화 속의 파티 장면(1928)(北洋畫報, p. 11).

으로 가슴은 노출되고 허리를 잘록하게 나타내줌으로써 기포의 실루엣이 직선형에서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곡선형으로 변하게 되었다. 즉, 전통 복식의 넓고 크며 직선적인 사각형의 실루엣에서 여성의 인체 곡선을 살려주어 몸에 파드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sup>55)</sup>.

이와 같은 기포는 이전까지의 중국의 평면 재단으로 만들어진 전통 복식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서구의 구성방식이 도입되면서 기포가 중국의 평면구성 조형에서 서구의 입체구성의 조형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다투가 새로 생기게 되고, 몸판과 하나로 재단되었던 소매도 따로 재단하여 붙여지게 되며, 여러 가지 소매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앞 뒤판도 따로 재단하여 어깨의 연결봉제선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기포는 여성 신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고, 당시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중국을 대표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는 중국의 대표 여성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40년대에 이르러 기포는 구성 변화에 있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단,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을 사용하여 몸에 파드되는 실루엣을 형성하였으나, 중국 전통식 차이나이즈 칼라와 우임의 여림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중국 전통 복식 고유의 특징을 살리면서 서구 양식과 융합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4).

54) *Ibid.*, p. 23.

55) *Ibid.*, p. 4.



〈그림 24〉 1940년대 치파오  
(中國歷代服裝, p. 317).



〈그림 25〉 개량치파오(中  
國歷代服裝, p. 317).



〈그림 26〉 차이나이즈칼라의 치  
파오, 1931(中國老廣告, p.  
131).

중서융합식은 30년대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유입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40년대에 이르러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응용하게 되면서 중국 복식의 구성법이 완전히 서구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이런 중서융합식의 기포는 전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응용하고 있다.

#### 4. 서구개량식(西歐改良式)

중국 복식에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도입되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유형은 ‘서구개량식’이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며, 중국 전통복에 칼라 및 네크라인, 여밈, 소매까지 확대 적용되어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30년대 중반기부터 나타난 ‘개량기포(改良旗袍)’에서 서구개량식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개량기포란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으로 기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칼라와 여밈 부분, 어깨 및 소매밑단 등에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 복식이다. 외형상 서구식 의복의 특징적 요소들이 기포의 변형 정도에 따라 많게 혹은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구로부터 배운 재단법으로 자국 내에서 스스로 변형시켰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당시 기포의 특징적 요소였던 피트되는 긴 실루엣을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구적 디테일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변형시킨 복식의 형태를 만들었

다. 〈그림 25〉는 칼라와 소매를 변형하여 서구식의 러플 장식으로 변형하였으며, 트임의 위치도 앞 중심에서 왼쪽으로 살짝 벗어난 앞트임 형식을 갖춘 개량기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0년대에 나타난 서구개량식은 중국 복식을 현대식 복식으로 변형시켜 개량기포라고 불리면서 유행하게 되는 형태로 복식 문화가 가장 다채로웠던 시기에 나타난 가장 서구화된 현대적 디자인의 형태였다(그림 26).

서구문화 유입에 따른 복식의 양상과 유형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중국 복식의 변화를 중국의 서구문화의 유입에 관한 역사와 서구에 대한 중국인의 세계관 및 서구문화 수용 태도에 관한 이론을 배경으로, 서구 복식이 중국 복식에 유입, 절충, 융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중국전통식, 중서절충식, 중서융합식, 서구개량식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전통식은 고대 복식부터 평면의 직선 재단법 사용으로, 의복의 앞과 뒤, 소매를 모두 절개선이 없이 하나로 재단하며, 전통 우임식 여밈과 전통 자수의 사용과 같은 중국 복식 고유 특징들이 나타나는



<표 2> 서구문화 유입에 따른 중국 복식의 변천과 그 유형

시간적 범위	태동기 (1840~1910년 양무 운동기)	유입기 (1911~1918년 신해 혁명기)	발전기 (1919~1929년 5·4 운동 이후의 20년대)	성숙기 (1930~1938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30년대)	정지기 (1939~1949년 신중국 성립 이전까지의 40년대)
사대적 배경	-제국 열강의 침입 -청말의 위기적 침입 -서구사상의 파동적인 유입으로 인한 의식의 초기 단계적 변화 -남녀평등 주장 -유학생 파견 -전족 폐지 운동	-중화민국 탄생 -양국 개탄 -서구식 산식 제도 수립 -신구 논쟁의 발생 -여학생의 시대	-5·4 신문화 운동기 -현대화의 기점 -신구와 고금의 본격적인 논란 -서구문화의 직접적인 접촉 및 수용기	-본체본자, 서화론자의 심화된 논쟁 -국제적 도시로 성장한 상해 -현대화의 본격적인 불결 -송양동조의 만연	-공산국가인 신중국 성립 -제2차 세계대전기 -중일전쟁 등, 중국의 전쟁기 및 경제 공황
서구문화 유입에 따른 중국복식 변천	-서구 소재로 디테일 장식의 변화	-상의와 하의 구분 시작 -피트한 서구식 상의 실루엣 모방 -서구식 헤어스타일 모방 -서구식 액세서리 유입 및 착용	-상의와 하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남 -곡선미의 인식 -서구식 의복의 직접 착용 및 배합 착용 -폴 쉐어래 디자인 모방한 디자인 -칼라, 소매 부분의 서구식 장식 첨가 -중국의 평면식 재단법에서 서구의 입체식 재단법으로 바뀌기 위한 초기 발전적 단계	-원피스식 복식이 재유행 -서구의 입체식 재단법의 도입 -서구 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변형하여 중국 복식에 적용 -서구 기술의 유입으로 서구 의복 자급자족 생산 가능	-실용적, 간소하며, 편리한 서구식 복식의 등장
유형	중국 전통식 중서 절충식	중국 전통식 중서 절충식	중서 실용식	중서 융합식 서구 개량식	중서융합식

유형으로 청 말의 전통 사회에서 근·현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보편적으로 착용된 복식이다. 때론 반뉴를 사용하여 의복을 고정시키며, 품이 넓은 기포가 몸에 맞아 활동하기에 편리하게 바뀌었으며, 발목아래 길이로까지 길어진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파동적인 서구문화의 개방에 의한 선행의 실패로 서구 복식보다는 전통 복식을 착용하자는 애국사상이 반영되어 기포의 경우 만주족뿐만 아니라 한족도 착용하게 되어 중국 부녀의 대표적인 전통 복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1910년대까지 전통 기포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과 길이에서만 변화를 보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서절충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계속적인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인해 서구문화가 중국 사회에 전해지면서 서구 복식

양식이 스치듯 전통 복식에 나타나 서구 복식의 외형적인 요소만을 그대로 모방한 유형이다. 즉, 전통 복식의 평면 직선 재단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전의 복식보다 훨씬 피트성을 가미하거나, 서구식의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의 착장 형태로 변화되었다. 또한, 전통복에 서구의 트리밍을 사용하거나, 서구식 구두와 시계 및 액세서리와 함께 착용하거나 서구식 두발상식을 하였다. 즉, 문명신장의 복식, 서구식 긴 개더스커드 형태인 군, 서구식 추상 또는 기하학적인 문양, 개량 그레이저인 '두두(兜肚)', Paul Poiret와 Chanel 디자인을 모방한 기포가 등장하여 1920년대는 중국 복식의 현대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서구문화의 직접적인 접촉과 발달한 전문매체의 영향으로 단순한 모방에서 발전하여 서구 복식의 특징과 중국 전통 복식의 특징의 완벽한 양식적

혼합을 보이게 되는 중서융합식 유형이 등장하였다. 이는 중국 전통의 평면 재단에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함께 사용되나, 차이니스칼라 및 우임 등 전통 복식의 요소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구식 이브닝드레스를 모방한 중서식 기포는 30년대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유입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통복의 품이 넓은 사각형의 실루엣에서 여성의 인체곡선을 살려주어 몸에 피트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40년대에 이르러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응용하게 되면서 중국을 대표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는 중국의 대표 여성복으로 자리 잡아 전 세계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응용하고 있다.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의 도입으로 전통 복식을 서구식으로 자유롭게 변형한 서구개량식 유형이 나타나면서 중국 복식은 좀 더 서구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서구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며, 중국 전통복에 칼라 및 넥라인, 여밈, 소매까지 확대 적용되어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30년대 중반기부터 나타난 ‘개량기포’는 피트되는 긴 실루엣을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서구적 디테일을 사용하여 가장 서구화된 현대적 디자인이었다. 이 유형의 복식은 서구로부터 배운 재단법으로 자국 내에서 스스로 변형시켰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첫째, 20세기 전반기의 중국은 수천 년 이루어온 통치체계가 바뀌는 시기로, 복식문화의 반 전통 또는 비판적 계승이라는 측면을 나타냈고, 서구문화의 유입 및 학습으로 여성 복식은 지속적인 서구화의 과정에서 변형·발전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20세기 전반기의 중국 여성 복식은 무조건적인 서구 복식의 차용이 아니라 중국의 중화중심 사상과 중국의 것을 본위로 서구의 것을 이용하는 중체서용 사상이 복식에도 반영되어 중국 전통 복식을 토대로 서구 복식의 요소를 절충시키고 융합 또는 개량하여 착용하였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전통성 유지의 노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20년대는 현대화의 초석을 마련한 중서 절충식이 완성되어 중국 복식은 서구화 또는 현대화를 위한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30년대는 복식의 외형뿐만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도 서구

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도입되어 중국 복식에 적용되면서 40년대에는 중서 융합식으로 완전한 절충을 보였으며, 서구 개량식으로 서구화·현대화되어갔다.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서구 복식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먼저 그들의 논리, 태도, 세계관에 비추어 단순히 서구적 취향을 발견하여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구적 복식디자인 요소의 적절한 조화 혹은 올바른 이해보다는 중국인들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식으로 해석되어진 서구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경험과 바탕위에서 서구문화에 대해 재해석함으로써 중국적 특징과 서구적 특징이 혼합·절충되어진 그들만의 새로운 복식 문화를 창조해 내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복의 현대화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 및 아시아권 국가의 서구화 및 현대화를 위한 방향 제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장의 메카로 대두하고 있는 중국패션시장의 이해를 위해 중국 여성복의 서구화의 물결에 따른 현대화 과정을 살펴보고 동·서 절충의 단계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패션계의 중국 및 세계 진출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강진석 (2004). *중국의 문화코드*. 서울: 살림출판사.
- 金慶惠 (2002). “19세기 후반 중국 지식인의 세계인식과 서학수용.” *중국근현대사연구* 16집.
- 김소현 (2003). *실크로드의 복식 호북*. 서울: 민속원.
- 김승배 (2001). “서구문화 수용 인식 차이가 한국·중국·일본의 근대 교회 건축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교회사 연구* 16집.
- 김형석 (1995).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중관계와 중국선교의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4권.
- 김혜준 (1990). “서방문화 수용과 중국 사회사상의 변화.” *전망* 39권.
- 샤오메이천 저, 정진배·김정아 공역 (2001). *옥시덴탈리즘*. 서울: 강.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1989). *강좌 중국사학*. 서울: 지식산업사.

- 신승하 (1985). *근대 중국의 서양인식*. 서울: 고려원.
- 윤내현 (1988). *중국의 천하사상*. 서울: 민음사.
- 李丙仁 (2000). “중국 중심의 보편성, 서구중심의 특수성.” *중국근현대사연구* 9집.
- 이케다 마코토 외 저, 김태승 역 (1996). *중국공업화의 역사*. 서울: 신서원.
- Franke, Wolfgang 저, 金源模 역 (1982). *동서문화교류사*.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 하자마 나오키 외 저, 신일섭 역 (1999). *데이터로 본 중국근대사*. 서울: 신서원.
- 高春明·周汎 (1991).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 學林出版社.
- 王傳銘 (2002). *漢英服裝服飾詞匯*. 上海: 紡織大學出版社.
- 張愛玲 (2000). *中國現代服裝史上的三次對外交流*. 上海: 紡織學院.
- 張竟琮 (2002). *西服東漸*. 合肥: 安徽美術出版社.
- 臧迎春 (2001). *中西方女裝造型比較*. 北京: 中國輕工業出版社.
- 張竟琮 (2000). *中外服裝史對覽*. 上海: 紡織大學出版社.
- 張浩 (1999). *旗袍*. 上海: 紡織大學出版社.
- 周飛, 高春明 (1983). *中國歷代服飾*. 上海: 學林出版社.
- 包銘新 (1995). “收藏旗袍.” *上海服飾* Vol. 4.
- Steele, Valerie & John S. Major (1999). *China Chic: East Meets West*. London: British library.